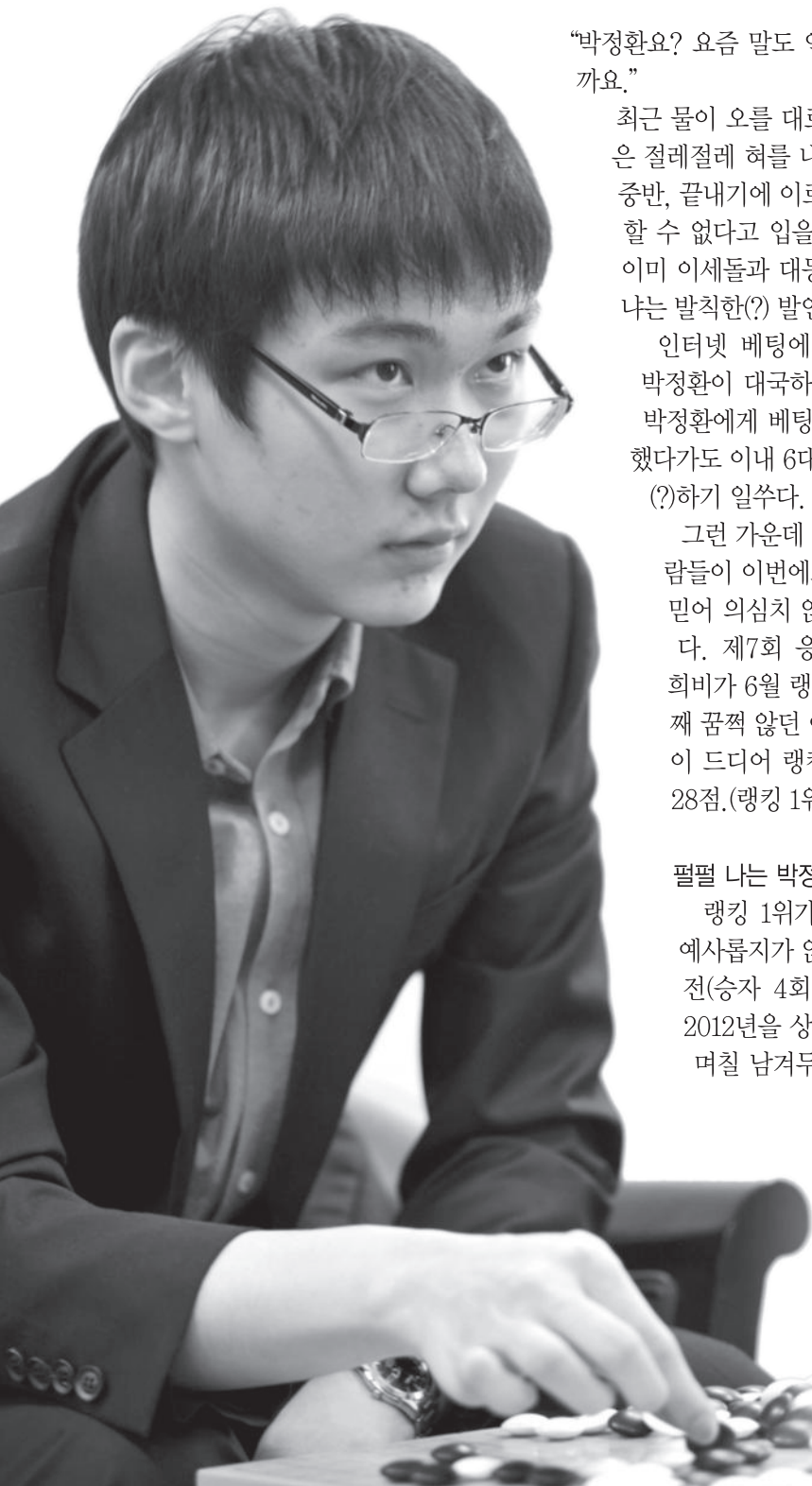


박정환, 이세돌과의 1인자 경쟁에 불을 지피다



“박정환요? 요즘 말도 안 되게 세요. 숨이 턱턱 막힌다니까요.”

최근 물이 오를 대로 오른 박정환과 대국해본 기사들은 절레절레 혀를 내두른다. 초반이면 초반, 중반이면 중반, 끝내기예 이르기까지 어느 곳 하나 빈틈을 발견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일부 기사들은 박정환이 이미 이세돌과 대등해졌거나 오히려 넘어선 것 아니냐는 발칙한(?) 발언까지 할 정도다.

인터넷 베테에서도 박정환의 인지도는 최고다. 박정환이 대국하는 날이면 상대가 누가 됐든 죄다 박정환에게 베테가 쏠리는 분위기다. 5대5로 출발했다가도 이내 6대4, 7대3, 8대2로 박정환에게 몰빵(?)하기 일쑤다.

그런 가운데 6월 4일 랭킹이 발표됐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도 이세돌 九단의 랭킹 1위 사수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런데 결과는 뜻밖(?)이었다. 제7회 응씨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에서의 희비가 6월 랭킹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며 27개월째 꿈쩍 않던 이세돌 九단을 제치고 박정환 九단이 드디어 랭킹 1위로 올라선 것이다. 점수차는 28점.(랭킹 1위 관련기사는 48쪽 참조)

펼 펼 나는 박정환을 누가 막을소나

랭킹 1위가 말해주듯 박정환의 금년 성적은 예사롭지가 않다. 1월 16일 제30기 KBS바둑왕전(승자 4회전)에서 백홍석 九단에 승리하며 2012년을 상큼하게 시작한 박정환은 상반기를 며칠 남겨두지 않은 6월 18일 현재 36승 4패

로 승률 90%라는 경이적인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이 기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진다면 88년 이창호가 三단 시절 세운 연간 최고 승률(88.24%, 75승 10패) 기록

도 꺾 판이다.

단순히 승률만 좋았던 건 아니다. 실익도 챙겼다. 3월 5일 맥심커피배(대 최철한 九단, 2-0)와 3월 19일 KBS바둑왕전(대 백홍석 九단, 2-0) 우승 등 상반기에 벌써 타이틀 두 개를 보태 하반기 활약여부에 따라서는 후지쓰배 우승 포함 3관왕으로 생애 최고의 해를 보냈던 지난해의 기록도 넘어설 태세다.

그 가능성이 엿보이는 게 얼마 전 개막된 제7회 응씨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3연승을 거두며 4강(대 이창호)에 진출해 있는 데다 6월 18일 벌어진 제17회 LG배 세계기왕전에도 32강전에서 중국의 우광야를 꺾고 16강에 진출하면서 우승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상태다. 둘 중 하나만 우승하면 지난해와 맞먹는 활약이고, 만일 두 개를 다 먹는다면 지난해의 기록을 넘어서며 다시 한번 최고의 한해를 보내게 된다.

올해 박정환에게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연승이다. 좀처럼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4월 18일 GS칼텍스배 준결승에서 이세돌 九단에게 금년 4번째 패를 안은 이후 지금까지 두 달 동안 패배를 잇고 살고 있다. 그 사이 연전연승을 거듭하며 18연승(4월 20일 2012한국바둑리그 2라운드에서 김형우 六단에 승리한 이후 6월 18일 제17회 LG배 세계기왕전 32강전에서 중국의 우광야 六단을 꺾은 데까지)을 기록 중이다. 만일 다음 대국에서 승리할 경우 최근 보기 드문 20연승 고지를 밟게 된다.

상대가 약했던 것도 아니다. 18연승의 제물로 원성진 박영훈 이영구 허영호 홍성지 한상훈 등 내로라하는 상위권 멤버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응씨배 16강전에서는 LG배 우승 이후 부쩍 기량이 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박문요마저 격침시켰다. 8강전에선 왕년의 맹주 조치훈을 꺾으며 응씨배 첫출전에 4강에 오르는 쾌거도 이뤘다. <표1 참조>

톱10과의 상대전적도 훌륭하다. 박정환에게 랭킹 1위의 바통을 넘기기 전까지 줄곧 1위를 달렸던 이세돌 九단에게만 1승 5패로 밀리고

날짜	승자	패자	대회명
6/18	박정환	우광야	제17회 LG배 32강전
6/12	박정환	김원빈	제56기 국수전 16강전
6/10	박정환	이동훈	한국바둑리그 8라운드
6/07	박정환	홍성지	제17회 천원전 예선결승
6/05	박정환	이정우	제17회 천원전 예선4회전
6/03	박정환	이영구	한국바둑리그 7라운드
6/01	박정환	안관욱	제17기 천원전 예선3회전
5/27	박정환	조치훈	제7회 응씨배 8강전
5/25	박정환	박문요	제7회 응씨배 16강전
5/23	박정환	양후이런	제7회 응씨배 1회전
5/20	박정환	원성진	제8기 한국물가정보배 승자2회전
5/17	박정환	박영훈	한국바둑리그 5라운드
5/14	박정환	양우석	제17기 천원전 예선 2회전
5/10	박정환	허영호	한국바둑리그 4라운드
5/04	박정환	한상훈	제8기 한국물가정보배 1회전
4/28	박정환	박승화	한국바둑리그 3라운드
4/26	박정환	김세동	제8기 한국물가정보배 예선결승
4/20	박정환	김형우	한국바둑리그 2라운드
4/18	이세돌	박정환	제17기 GS칼텍스배 준결승
4/12	박정환	김현찬	한국바둑리그 1라운드
4/04	박정환	옥득진	제8기 한국물가정보배 예선4회전
4/04	박정환	이용찬	제8기 한국물가정보배 예선3회전
4/02	박정환	박지은	제8기 한국물가정보배 예선2회전
3/30	박정환	미위팅	제9회 춘란배 16강전
3/25	스위에	박정환	제2회 초상부동산배 2회전
3/23	박정환	공지에	제2회 초상부동산배 1회전
3/19	박정환	백홍석	제30기 KBS바둑왕전 결승2국
3/16	박정환	이영구	제17기 GS칼텍스배 8강전
3/14	박정환	쥘앤호	제1회 백령배 64강전
3/08	박정환	백홍석	제30기 KBS바둑왕전 결승1국
3/05	박정환	최철한	제13기 맥심배 결승2국
3/03	미위팅	박정환	제4회 비씨카드배 64강전
2/26	박정환	최철한	제13기 맥심배 결승1국
2/23	박정환	주형욱	제17기 GS칼텍스배 16강전
2/21	최철한	박정환	제7기 십단전 8강전
2/19	박정환	백성호	제13기 맥심배 준결승전
2/13	박정환	강동윤	제30기 KBS바둑왕전 승자결승
1/31	박정환	한종진	제7기 십단전 16강전
1/30	박정환	박영훈	제13기 맥심배 8강전
1/16	박정환	백홍석	제30기 KBS바둑왕전 승자4회전

(표1)2012년 박정환 九단 대국일지(40전 36승 4패, 현재 18연승 중)

있을 뿐 랭킹 3위 원성진 九단과는 5승 5패로 박빙, 4위 박영훈 九단에 7승 3패, 5위 최철한 九단에게 7승 4패로 차이를 점점 벌이고 있다. 특히 얼마 전 비씨카드배를 우승하며 랭킹 6위

랭킹	2	3	4	5	6	7	8	9	10
기사	이세돌	원성진	박영훈	최철한	백홍석	강동윤	조한승	김지석	이창호
승	1	5	7	7	10	1	0	9	5
패	5	5	3	4	2	2	1	2	4
비교	열세	박빙	우세	우세	우세	열세	열세	우세	우세

(표2)톱10과 박정환의 상대전적

로 점프한 백홍석 九단을 상대로 해서는 10승 2패, 바로 위 선배인 김지석 八단(9위)에게는 9승 2패로 압도적으로 우세를 보이고 있다.

지고는 못 사는 승부근성과 학구열

지난해 후지쓰배를 품에 안으며 ‘세계 챔프’ 대열에 오른 박정환의 금년 활약은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 그러나 최근처럼 무서운 기세로 솟구쳐 오르리라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박정환은 2006년 입단해 아직 프로경력이 6년도 채 안 됐기에 적어도 1, 2년은 더 커리어가 쌓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박정환에게 커리어 따위는 과거에 이창호와 이세돌이 그랬듯 아무 소용이 없었다.

박정환의 빠른 성장세는 이창호 九단이나 지금 세계 1인자로 활약하고 있는 이세돌 九단에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오히려 첫 타이틀 획득에서는 박정환이 이창호 이세돌보다 조금 더 빠른 감이 있다. 입단하고 1년도 채 안 돼 2007마스터스 챔피언십을 거머쥐었고

2009년엔 국내 메이저대회 중 상금규모 5위였던 십단전(천원전 우승으로 그해 2관왕)을 우승해 거물급 기사로의 성장을 예고했었다.

박정환의 승승장구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2010년 십단전 2연패에 성공한 데 이어 지난해와 올해엔 속기전인 KBS바둑왕전을 거푸 우승했다. 지금까지 국내외 기전에서 총 9회 우승을 차지해 프로입문 7년차에 타이틀 획득 3개에 그친 이세돌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프로입문 7년차에 10회 우승한 이창호 九단과 견줘도 엇비슷하다.

박정환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승부근성과 학구열이다. 지난해 후지쓰배를 우승할 당시 본지 인터뷰에서도 밝혔듯 박정환은 대국에서 패하면 그날은 습관처럼 인터넷 대국으로 분한 마음을 삭힌다고 했다. 지고는 억울해서 못 잔다는 얘기였다. 누구도 못 말리는 이런 승부근성이 오늘의 박정환을 독하고 강하게 만들지 않았나 싶다.

학구열에 있어서도 박정환을 따라갈 자가 없다. 본지 해설위원인 김영삼 九단은 박정환에 대해 “우리 팀(정관장) 선수로 뛰고 있어 자주 보곤 하는데, 도무지 쉬는 것을 못 봤다. 틈만 나면 공부한다. 타고난 재능에 공부를 이렇게 독하게 하니 성적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며 학구열을 높이 샀다.

박정환은 평소는 물론이고 해외 원정 대국을 나설 때면 늘 손에 사활집이 들려져 있다. 절정의 기사가 무슨 사활공부냐 싶겠지만 박정환은 아랑곳 않는 눈치다(프로기사들이 사활집을 공부하는 이유는 사활감각을 키우는 것도 있지만 판단착오를 없애기 위한 집중력 훈련의 의미도 있다).

결승 대국 같은 중요대국의 복기 때만 되면 박정환의 모습이 심심치 않게 목격되는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과거에 이세돌 九단이 고



제7회 응씨배 8강전. 조치훈 九단을 꺾고 현재 4강에 진출해 있다.

수들의 복기에서 공부했다고 하듯 박정환도 그 방법으로 착실히 실력을 쌓아가고 있다.

1년 2년 관록이 붙으면서 최근엔 노련미까지 갖추고 있다. 윤현석 九단은 “과거엔 덜 다듬어지고, 서두르는 경향이 엿보였는데 최근엔 그런 구석을 찾아 볼 수가 없다. 끝내기 실력이 세지면서 느긋하게 판을 이끌고 장기인 수읽기 실력도 좀 더 정확해지고 강해진 느낌을 받는다.”고 평했다.

그럼 박정환에게 부족한 건 없는 것인가?

2년 전쯤인가? 자기 생각을 거침없이 표현하는 이세돌은 동문(권갑용도장) 후배 박정환의 바둑에 대해 “딱히 약점을 꼽을 수는 없는데, 확실한 ‘자기류’의 구축에 있어서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알듯 모를 듯한 묘한 발언을 했다. 비슷한 시기 ‘바둑 황제’ 조훈현도 “박정환이 이창호 이세돌처럼 1인자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만의 색깔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었다.

2년이 지난 현재 박정환은 어떻게 변했을까? 일단 지난해 세계대회인 후지쓰배 우승을 포함해 3관왕에 올라 이세돌과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외형적으로는 성장했다. 그렇다면 두 거장이 조언한 부분은 어떻게 됐을까?

과거 조훈현이 ‘부드러운 바람, 빠른 창’으로 무장해 일본에서 돌아와 한국바둑계를 평정했던 것처럼 박정환도 2년 사이에 본인의 색깔을 찾았을까?

바둑관계자를 비롯한 많은 기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선 “아직도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면서도 조만간 박정환이 이창호 이세돌의 뒤를 이어 한국을 대표하는 기사로 성장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분위기다.

바둑해설자로 박정환 바둑을 여러 판 해설한 김성룡 九단은 “바둑은 과거보다 세졌는데, 색깔은 발견할 수가 없다. 그 점이 조금 아쉽다. 하지만 수읽기에 탁월한 실력을 가진 박정환이 최근 들어서는 포석에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게 바둑에 묻어나오

고 있다. 그런 점은 고무적.”이라며 “앞으로 이세돌과의 일전이 자주 성사될 것이고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 1인자의 패권을 움켜쥐리라 보는데,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박정환이 그 자리를 차지하리라 본다.”고 전망했다.

윤현석 九단도 “박정환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발상의 자유로움이 해를 거듭하면서 점점 무르익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후지쓰배 우승 이후부터는 자신감까지 더해져 요즘엔 무패행진을 펼치고 있다.”며 “이런 추세라면 3년 내에 이세돌을 제치고 1인자로 올라설 것이다.”라고 박정환의 잠재력과 성장세를 점쳤다.

누구의 예측이 맞을지는 알 수가 없다. 3년이 걸릴 수도, 아니면 5년이 걸릴 수도, 이도저도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잠잠하던 바둑계가 이렇게 호들갑을 떨 수 있는 것은 이제 프로 무대를 밟은 지 6년 남짓에 불과한 박정환이 어느 틈에 1인자 운운할 만큼 훌쩍 커버렸다는 사실이다. 그게 얼마나 유쾌한 일인가.

(인터뷰/구기호 편집장)